



위성미 '홀인원'... 불꽃타 오렌만이야

LPGA 캐나다오픈 1R 7언더 단독선두... 4위 신지애 5타차 추격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의 흥행 카드 위성미(21·나이키골프)가 오랜만에 불꽃을 뿜어냈다. 위성미는 27일(한국시간) 캐나다 매니토바주 유니팩의 세인트 찰스 골프장(파72·6572야드)에서 개막한 LPGA 투어 캐나다오픈 1라운드에서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6개에 홀인원의 행운까지 잡으며 7언더파 65타를 몰아쳤다. 4언더파 68타를 친 사라 켈프(호주)를 3타차로 따돌리고 단독 선두로 나선 위성미는 지난해 11월 멕시

코에서 열린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 이후 9개월 만에 승수를 추가할 발판을 마련했다. 위성미는 지난해 그토록 고대하던 첫 우승컵을 품에 안았지만 올해는 14개 대회에 출전해 톱10에 세차례만 드는 부진한 성적을 내 실망감을 안겼다. 드라이버샷 비거리 295야드에 이르는 무시무시한 장타를 앞세운 위성미는 전반에 3타를 줄이며 상위권으로 치고 나간 뒤 183야드 11번홀(파3)에서는 홀인원을 낚는 행운까지 따랐다.

위성미는 "약간 오른쪽으로 친 것 같았는데 바람이 불어 한번에 홀로 빨려 들어갔다"면서 "오늘 경기는 끝났고 내일은 새로운 마음으로 필드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우승자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이 3언더파 69타를 쳐 3위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신지애(22·미레이셋)가 2언더파 70타로 이일희(22·동아회원), 제인 박(23) 등과 함께 공동 4위에서 위성미를 추격했다.

위성미와 동반 플레이를 펼친 신지애는 버디 4개에 보기 2개를 곁들였지만 버디 퍼트가 홀을 살짝 살짝 빗겨나가면서 타수를 더 줄이지 못해 애를 태웠다. 하지만 아직 3라운드나 남아있고 세계랭킹 상위 에 있는 선수들이 1라운드에서 부진한 성적을 내 제 출해 신지애로서는 세계 랭킹 1위 탈환의 기회를 잡았다. 세계랭킹 1위 미야자토 아이(일본)는 버디는 3개에 그치고 보기 5개를 쏟아내 2오버파 74타로 공동 63위로 떨어졌다. 세계랭킹 2위 크리스티 커(미국)도 3오버파 75타를 치며 공동 81위로 밀려 톱 통과를 걱정하게 됐다. /연합뉴스



'골프황제' 우즈 이혼효과?

타이거 우즈(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1차전 바클레이스에서 오랜만에 골프 황제다운 샷을 뽑았다. 우즈는 27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페레머스의 리지우드골프장(파71·7319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7개를 잡아내고 보기 1개를 곁들여 6언더파 65타를 쳐 본 테일러(미국)와 함께 공동 선두로 나섰다. 라이언 파머, 브라이언 게이(이상 미국), 아담 스콧(호주)이 1타 뒤진 5언더파 66타로 공동 3위를 달렸다. 우즈가 선두로 라운드를 마친 것은 지난해 11월 유럽프로골프투어 호주 마스터스 이후 9개월만이다. 성추문 뒤 활동을 중단하다 지난 4월 마스터스 대회에 복귀했지만 골프 1인자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던 우즈는 얼마 전 이혼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화제를

모았다. 복잡한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심적 부담감을 털어버린 듯 우즈는 올 시즌 가장 좋은 스코어를 적어내며 부활의 조짐을 보여줬다. 우즈는 언더파 기준으로 브리티시오픈 1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 US 오픈 3라운드에서 5언더파 66타를 쳤다. 우즈는 페덱스컵 랭킹에서 112위로 밀려 이번 대회에서 이른 시간에 티오프를 해야 했지만 그동안 부진을 만회하는 샷을 날렸다. 우즈는 드라이버는 단 두 차례만 사용하기는 했지만 5번홀의 드라이버샷은 완벽했다. 우즈는 290야드의 짧은 파4홀에서 티샷을 그린 위에 정확히 올렸고 두 차례 퍼트로 버디를 잡아 팬들의 박수를 받았다. 우즈는 12번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그린 옆 벙커에 빠뜨려 보기를 적어내기는 했지만 퍼트수 27개를

PGA 바클레이스 1R 6언더 선두 최경주 3타 뒤진 공동 20위

기록하는 등 안정된 경기력을 펼쳤다. 18번홀(파4)에서도 드라이버를 잡은 우즈는 300야드 이상을 날려 페어웨이에 안착시켰고 7번 아이언으로 홀 옆 2m에 떨어뜨려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첫날을 마쳤다. 우즈는 "올해 내내 있었던 무엇인가를 찾은 것 같다. 다시 샷 감각을 되찾게 돼 흥분된다"며 경기 내용에 만족스러워했다. 최경주(40)도 버디 6개, 보기 3개를 묶어 3언더파 68타를 쳐 로리 매캘로이(북아일랜드), 데이비드 듀발(미국) 등과 함께 공동 20위에 이름을 올렸다. 위창수(38, 테일러메이드)는 2언더파 69타로 공동 33위에 올랐지만 나상욱(27, 타이틀리스트)은 1오버파 72타로 공동 72위, 양용은(38)과 앤서니 김(25·나이키골프)은 2오버파 73타를 쳐 공동 93위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최진호 역전 우승

사흘내 선두 양지호 생애 첫 승 날려

2006년 신인왕 출신 최진호(26)가 프로데뷔 이후 두 번째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최진호는 27일 경기도 레이크힐스 용인 골프장(파72·7116야드)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적어내 함께 7언더파 281타로 짜릿한 역전 우승을 거뒀다. 이로써 최진호는 2006년 비발디파크오픈에서 정상에 오른 이후 무려 4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챙기면서 1등 상금 6000만원을 챙겼다. 이날 우승 상금은 이번 시즌 자신의 총상금(5119만5143원)보다 많은 액수다. 최진호에 이어 김위중(30·삼화저축은행)과 지난 8월 프로선수 최연소 우승 기록을 달성한 김비오(20·넥슨)가 나란히 함께 6언더파 282타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3라운드까지 5언더파21타를 쳐서 공동 5위로 최종 라운드를 시작한 최진호는 전반에 버디 2개와 보기 1개를 적어내 1타를 줄였다. 최진호는 선두였던 광양 출신의 양지호(21·투어스테이지)가 7번홀(파3)에서 3타를 잃고 스스로 무너지는 틈을 노려 파행진을 벌이다 12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아 김위중과 7언더파 공동 선두로 올라섰다. 16~17번홀에서도 파행진을 펼친 최진호는 18번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이 그린을 벗어난 데 이어 연이은 칩샷마저 홀컵을 외면해 보기도 경기를 마감했지만 김위중 역시 파에 그쳐 1타차 우승을 확정했다. 반면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를 달렸던 양지호는 7번홀에서 티샷이 그린을 벗어나 아웃오브바운즈(OB)가 되면서 트리플 보기로 흠아웃하는 등 6~8번홀에서만 무려 5타를 잃으며 함께 3언더파 285타로 공동 7위에 그쳐 생애 첫 우승의 기회를 날렸다. /연합뉴스

전통종목전국대회 11월 광주 개최

'2010 전통종목전국대회'의 광주개최가 확정됐다. 우리나라 전통 민속종목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2010 전통종목전국대회가 오는 11월12~14일까지 광주에서 열린다. 지난해 강원도 속초에서 처음 열린 후 2회째를 이룬 대회는 광주시와 국민생활체육회 공동주최, 광주시생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 전국 종목별 연합회 공동 주관으로 열리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다. 16개 시·도선수단과 일원 등 500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지난해보다 일정이 하루 늘어나 3일간 진행된다. 또 1종목이 늘어나면서 줄다리기·족구·궁도·택견·국화기공·씨름·국무도 등 7개 종목이 치러진다. 대회를 주관하는 광주시생활체육회는 고싸움 놀이, 줄타기 등 전통문화 시연행사와 기타 전통 이벤트 행사도 마련 할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뛰고... 넘고... 人馬의 어울림
 27일(한국시간) 뉴욕 새러토가스 스프링에서 열린 뉴욕 경마컵 장거리 장애물 경마경기에서 가수인 브라이언 크라울리가 탄 말이 장애물을 완벽하게 뛰어 넘고 있다. /연합뉴스

'태극남매' 이용대-이효정 8강 좌절

대만 리성무 - 치엔유친에 0대2 완패 남자복식선 이용대-정재성 8강 합류

한국 서클록 남자복식의 '간판' 이용대(삼성전기)-정재성(국군체육부대)이 2010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8강에 진출했다. 이용대-정재성은 27일(한국시간) 새벽 프랑크푸르트 파르 스타드 피에르 드 쿠베르탱 실내체육관에서 치러진 대회 남자복식 16강전에서 헝가리 쿠루나야기 사푸트라-렌드라 위자이(이상 싱가포르)를 2-0(21-14 21-8)으로 가볍게 제치고 8강에 진출했다. 이용대-정재성은 1세트에서 9-9까지 평

평한 접전을 펼쳤지만 이내 집중력을 발휘해 21-14로 이겼고, 2세트에서는 일방적인 공세를 펼치며 8실점으로 막아 패승을 거두고 8강 무대에 합류했다. 하지만 이용대는 이효정(삼성전기)과 호흡을 맞춘 혼합복식 16강에서는 리성무-치엔유친(이상 대만)을 상대로 0-2(17-20 20-22)로 완패하며 8강 진출이 좌절됐다. 또 혼합복식 16강전에 나선 유연성(수원시청)-김민정(전북은행)도 세계랭킹 3위 노

바 위다안토-릴리야나 나치르(이상 인도네시아)에 1-2(17-21 21-13 19-21)로 석패해 8강에 오르지 못했다. 반면 고상현(김천시청)-하정은(대교)은 요하림 피셔 니엘센-크리스티나 페데르센(이상 덴마크)를 맞아 2-1(21-13 13-21 21-19) 신승을 거두고 혼합복식에서 유일하게 8강에 진출했다. 한편 정경은(KT&G)-유현영(한국체대)은 여자복식 16강에서 발레리아 소로키나나 비슬로바(이상 러시아)를 맞아 2-1(13-21 21-19 26-24) 역전승을 거뒀고, 하정은(대교)-김민정(전북은행)은 즈랄라 구티-아쉬워니 폰나파(이상 인도) 2-0(21-14 21-15)으로 제치면서 나란히 8강전에 올랐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하원민(서울 현대백화점 고문)·김정일씨 장남 상욱(드림성형외과 강남점 의사)군 조운식(번호사)·양신숙씨 장녀 소원(연세대 의대 분과 4년) 양=9월4일(토) 오후 1시30분 서울 JW메리어트호텔 5층(그랜드볼룸)
 ▲김영수(대진종합건설(주) 회장)·안미자씨 장남 재현(대진종합건설(주) 전무이사) 반효식·김대숙씨 차녀 소정(법무법인 한로 변호사)양=9월 4일(토) 낮 12시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신라호텔(DYNASTY홀)
 부음
 ▲양주임씨 별세 임광현·득영·득원·관중·남근·광자·광숙·미숙씨 모친상=발인 30일(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삼가 故人之 冥福을 빕니다

故 임종호 님(남/94세) 子/子孫 : 임유택·김순옥, 유택·정미순, 재래, 문희 女/ 婦 : 임효순·유재희, 경옥·김성만, 경희·한승연, 경애·박희연 *호실 : 201호 *발인 : 8월30일 *장지 : 영락공원	故 한정림 님(여/92세) 子/子孫 : 유갑민·최명순 女/ 婦 : 류복희·이영희, 영희·정영숙, 순희·고리석 *호실 : 401호 *발인 : 8월26일 *장지 : 화성2동선영
故 우원석 님(남/58세) 子 : 우광민·권혁 未亡人 : 김정례 *호실 : 402호 *발인 : 8월29일 *장지 : 영락공원	故 왕룡 님(남/33세) 子 : 왕순 *호실 : 102호 *발인 : 8월28일 *장지 : 영락공원

마음까지 전인함.
금호 장례식장 ☎ 062)227-4000

그린장례식장 24시 대기 / (062)250-4455

그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재해·재인·재민씨 모친상 김현태·고광석·▲김경만·종광·종국씨 부친상 박현동·김일봉·박용규·이태규씨 원모상 김용수씨 원모상
 발인 : 8월28일(금) 11시40분 발인 : 8월28일(목) 00시00분
 장지:영락공원 연락처: 260-4407 장지:담양전주교묘역 연락처: 260-4409